#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우수"성적 획득

## 고객 및 윤리경영 분야에서 최고점수 받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이하 공단)이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8월10일 확정 발표한 지방공기업 340개 대상으로 주관한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자치구 공단중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자치구 공단 평균 점수인 86.25점 보다 2.39점 높은 점수로 전국 자치구 공단 37개 중 "7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자부에 의해 7개 유형별*로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0여개 세부지표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23개반 193명)된 평가단이 현지평가(4~6월)와 이의신청·확인검증(7월)을 거쳐 이루어 졌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고용안정, 안전관리 및 청년고용 창출 등 정부 정책 지표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지방공기업 경영 환경을 반영하였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다등급에서 1등급 상승한 나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고객 및 윤리경영 분야에서 95점(1위), 공공성 증진 분야에서 93점(3위),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경영성과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 공단중 상위 수준인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이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관리업무 중심의 조직을 현장업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경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성과주의 시스템을 정착하여 직원 참여경영을 실현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이뤄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장별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 파악을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료시설 무료·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사적 참가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점도 평가에 큰 몫을 했다.

공단의 이번 우수등급인 나등급 평가로 이사장은 201%에서 300%, 임원은 150%에서 200%, 직원은 80%에서 100%의 성과금을 받게 된다.

홍성환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중·장기적 성장 모듈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화합하여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기본에 충실하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